식물성플랑크톤 238종→86종 대폭 감소

잘못된 용역으로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축소…최종보고서 보니

펄 많은 지역 특성상 복사열 적용한 어업피해 범위 산정 문제
방류제 시설로 퇴적물 쌓여 어폐류 폐사 등 해양생태계 영향
외해쪽으로 피해범위 넓어져 어민 중심 첨예한 갈등 빚을 듯

한빛원전 온·배수 및 침·퇴적의 영향으로 영광 해양생태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사열을 적용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한 용역보고서는 잘못됐다는 전남도와 영광군, 수협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광주일보 1월 22일 1·3면 보도〉

영광지역 어촌계 어민, 수협 등은 최종보고서가 공식 제출된 만큼 지역민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 주목된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최근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용역보고서는 지난달 공개된 '요약보고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확산 범위 및 어업피해 범위 산정 ▲온배수 저감시설에 따른 침·퇴적 피해 여부가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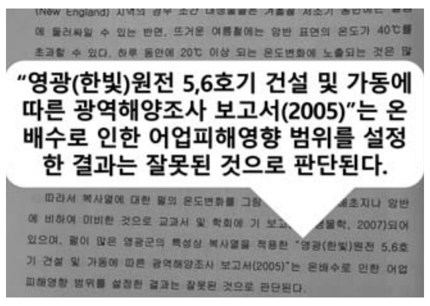
특히 보고서는 "펄이 많은 영광군 특성상 복사열을 적용한 '광역해양조사 보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복사열은 발전소 건설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온배수가 확산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산정할 때 고려되서는 안되는 요소라는 게 연구소 주장이다. 결국, 한국해양연구원이 애초 중간보고서에는 한빛원전 온배수 확산 거리를 29.7㎞로 했다가 복사열을 감안해 20.2㎞로 줄여 최종 발표한 '광역해양조사 보고서'(2005년)는 학술적,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가 한수원 의뢰로 이뤄진 조사를 납득하기 어려우니 지자체 주도로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온배수 확산거리가 당시 어민 보상 범위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어민들을 중심으로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로 침·퇴적 결과 연간 1~2m의 퇴적이 발생하는 점, 외해쪽으로 피해범위 폭이 넓어지는 현상도 지적됐다.

해양 생태계 변화 실태도 적시됐다. 보고서는 '한빛원전 1~6호기가 가동하는 동안 영광군 해역 해양생태계 생물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배수 및 침·퇴적에 의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ew England) 지역의 경우 조간 대생물들은 겨울철 서로기 ... 에 둘러싸일 수 있는 반면, 뜨거운 여름철에는 암반 표면의 온도가 40℃를 초과할 수 있다. 하루 동안에 20℃ 이상 되는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것은 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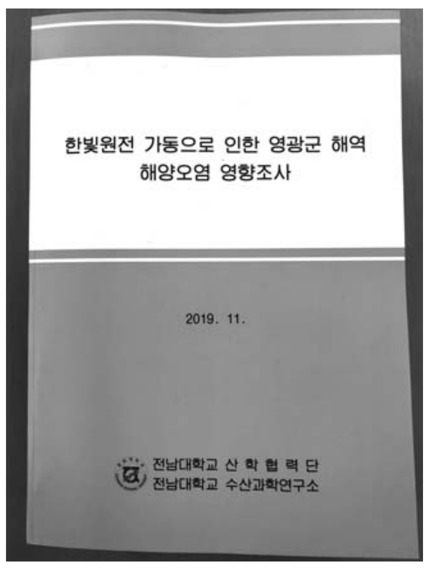
"영광(한빛)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보고서(2005)"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한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사열에 대한 펄의 온도변화를 그림 ... 해조지나 암반에 비하여 미비한 것으로 교과서 및 학회에 기 보고 ... 생물학, 2007)되어 있으며, 펄이 많은 영광군의 특성상 복사열을 적용한 "영광(한빛)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보고서(2005)"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한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최근 영광군에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 한수원 의뢰로 이뤄진 '광역해양조사' 보고서(2005년)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식물성플랑크톤의 경우 한국해양연구원의 '광역해양조사' 당시에는 238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조사에서는 86종이 출현하는 데 그치는 등 크게 줄었다.

이번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한경호 교수는 "이번 용역은 한빛 원전 온·배수 배출이 영광의 해양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방류제시설로 인해 퇴적물들이 쌓여 원전 인근 어폐류가 폐사하는 등 어업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최근 영광군에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남로 245 주소와 발견된 탄흔 수 245개로 이름 지은 '전일빌딩 245'.

'전일빌딩 245' 탄흔 추가 발견

도로명 주소와 탄흔 수 245개 상징…명칭 고민도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탄흔 추가 발견 사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중인 전두환씨 사건 재판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재판부야 헬기 사격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쓸 계획이지만 불똥은 광주시로 튀었다. 당장 전일빌딩 내 추가 탄흔이 발견되면서 기존 총탄 흔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담아 추진중인 광주시의 '전일빌딩 리모델링' 개관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탄흔 수 245개를 모티브로 한 명칭 '전일빌딩 245'를 바꿔야 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판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19일 기존 탄흔 외에 추가로 발견된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대한 감정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지법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헬기사격 총탄 흔적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국과수는 전일빌딩 10층의 탄흔들이 헬기사격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한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확인한 245개보다 많은 탄흔을 발견했다는 국과수의 감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측은 전일빌딩 내 추가 탄흔 발견 사실을 토대로 향후 전일빌딩 명칭 변경 등을 논의중이다. 광주시는 '광주 동구 금남로 245'로 지정된 도로명 주소와 245개 탄흔(외벽 68개, 실내 177개)을 토대로 전일빌딩을 '전일빌딩 245'로 부르기로 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탄흔이 발견된 것이지만 기존 탄흔이 있는 공간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기존 공간을 보존해 온 리모델링과 개관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헌혈하는 광주 북구청 직원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20일 오전 청사 앞 광장에서 헌혈행사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서운 10대…50대 폭행하고 동영상 촬영 인터넷 올려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 50대 남성을 마구 때리며 친구에게 동영상까지 촬영토록 한 뒤 인터넷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도경찰은 지난 19일 밤 11시께 진도군 남동리 한 해장국집에서 B(53)씨와 말다툼하다 수차례 때리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상해)로 A(16)군을 입건, 조사중이다. A군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있던 친구에게 '촬영'토록 한 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영상 사이트를 토대로 A군과 동영상을 찍은 친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법원 "선수-구단 이면계약 했어도 무효로 볼 수 없어"

윤석영 1억5000만원 물어줘야

선수와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금지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윤석영(30·부산 아이파크) 선수 측은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윤 선수에 대한 위약금 소송에서 윤 선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위약금 1억5000만원을 전남드래곤즈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018년 7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일본을 거쳐 국내로 복귀한 윤석영의 FC 서울과의 계약을 근거로 15억원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선수가 2013년 전남드래곤즈에서 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즈 파크 레인저스(QPR)에 진출할 당시 '해외리그 이적 후 K리그 복귀시 선수 고용계약 최우선 협상권은 구단에 있다'는 특약을 맺었음에도, K리그 복귀 예정이라는 것과 다른 구단과의 협상 사실, 다른 구단이 제시한 계약 조건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FC서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구단측 주장이었다.

전남은 '위반한 측에서는 위약금 1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특약 내 합의내용을 들어 소송을 냈고 1심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약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금지하는 '이면계약'이라 '무효'라는 윤 선수측 주장과 달리,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반사회성, 반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 리그 복귀 예정사실을 전남보다 다른 구단에게 먼저 알리고 전남보다 우선해 다른 구단과 협상한 점 등을 들어 특약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위약금 15억원은 너무 많다고 보고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람 피운 여자 때려도 죄 아냐" 여친 목 조르고 폭행한 우즈벡인

쌍나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가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의 나라 문화에 따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경찰서행.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4)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애인과 술을 마시다 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돼,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 애인의 목까지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당신네 문화에선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안된다고" 응수.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